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6월 20일(주일) 제1349호



여름 아웃리치 시작됐다!

공동체 종강예배 선교사초청 온라인 아웃리치 시작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웃리치, VR선교 체험관 활용

2021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지난 6월 12일(토) Zoom으로 '선교중보기도대회 시온의 영광'을 개최하고 여름 아웃리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선교중보기도대회 시온의 영광'에는 부천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연결된 선교사 24명을 초청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VR선교 체험관을 활용한다.

온라인 아웃리치는 상반기 공동체 종강예배에 선교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공동체 종강예배에 선교사를 초청해서 관계를 맺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현지 온라인 예배, 간증, 문화 체험 등에 참여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선교사와 선교사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 여건에 따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양재 화평

홀에서 대면 및 비대면 아웃리치를 병행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 아웃리치는 대상 교회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교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도 아웃리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Point5공동체는 전라북도 고창, 경기도 안산, 경상남도 통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준희 형제(Point5공동체)는 "소수라도 좋으니 꼭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

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VR선교 체험관은 선교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도구다. VR선교 체험관에서는 몽골, 일본, 탄자니아, 레바논,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부다비, 멕시코, 러시아 선교현장을 VR기기를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다. 7월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김한수 선교사(캄보디아)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공동체별로 7월 3일까지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지난 6월 11일(금) 강남C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3일(토) 광명, 마포, 북누리, 신용산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공동체별 일정 11면).

올해 상반기 온누리공동체는 1월 4일~4월 3일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의 기적, 1월 30~31일, 2월 6~7일 선교헌금작정, 3월 22일~27일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3월 29일~4월 3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월 12일~6월 4일 미안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등을 개최하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시간을 보냈다. / 정현주 기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마리아행진 6월 23~25일 오전 10시 각 캠퍼스 본당

드디어 이번 주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진이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23~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1 마리아행진 '일어나 함께 가자'에서는 6월 23일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24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25일 이재훈 담임목사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마리아행진 참가자들은 밝은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자리 맡기를 할 수 없다. 본당에 들어가면 좌석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해야 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접수확인 할 수 있고, 9시 30분부터 본당에 입장할 수 있다. 마리아행진 참가자들에게는 '신부의 기도' 다이어리를 나눠준다. 다이어리에는 요일별 주제 말씀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이 적혀 있다. 고백기도, 감사기도, 묵상란이 별도로 있어서 개인 기도에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부흥을 준비하라!’ (Prepare for Revival!)

25~27일 영어예배 온라인 부흥회

영어예배에서 온라인 부흥회 '부흥을 준비하라(Prepare for Revival!)'를 개최한다. 6월 25일과 26일 오후 8시 줌(Zoom), 27일 오후 4시 영어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R.T. 켄달 목사이다. 25일과 26일 집회에서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6월 24일까지 영어예배 홈페이지(www.onnurienglish.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R.T. 켄달 목사는 1977년부터 25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체플에서 목회한 목사이다. <자기 용서>, <R.T. 켄달의 임재>, <내일의 기쁨 부음>, <질투> 등 60여 권의 저서가 있다.

문의: 02-3215-3685

/ 정현주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생은 유한하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전도서 저자는 그의 인생 말년에 삶에서의 모든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전 7:1-2).

알프레드 노벨은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오인한 신문기자가 자신의 삶을 평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인생관이 바뀌어 다이내마이트 발명으로 번 돈으로 노벨상을 제정했다는 일화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의 이점을 보여준다.

예일대학의 셸리 케이건은 예일공개강좌(Open Yale Course) 철학 부문에서 죽음에 대해 종교를 배제한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그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 4가지 죽음의 특성 때문으로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죽음의 필연성). 둘째, 인간은 얼마

나 살지 모른다(죽음의 가변성). 셋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죽음의 예측불가능성). 넷째,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죽음의 편재성).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학문은 죽음을 이해하거나 극복하거나 수용하거나 아름답게 승화시키기 위해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종교나 문화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그 이후를 어떤 것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슬람은 타협도 없고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 신성한 알라가 내린 계시를 잘 따르라고 가르친다. 무슬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강령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무슬림 개개인의 오른쪽 어깨에는 선행을 해아리는 지니가, 왼쪽 어깨에는 악행을 해아리는 지니가 평생 그들의 행동을 기록한다. 죽음의 순간 알라 앞에서 선행과 악행을 해아린 자루가 천칭저울 양쪽에 놓인다.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악행이 더 무거우면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기에 무슬림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드러난 선행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불교, 힌두교, 도교 등의 동양종교에서는 윤회 혹은 환생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죽으면 다음 생애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삶

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가 신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큰 깨달음을 얻어 그것을 인간들에게 드러낸 사례가 극히 희귀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 세계관에서는 깨달음을 얻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윤회에 의해 기회는 끝없이 있기에 죽음에 대해서도 대단히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모던 같은 세속적 무신론 세계관에서는 호홉, 맥박, 혈압 같은 생명 신호가 끝나면 영혼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고 규정한다. 영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영혼이 가게 될 천국이나 지옥 같은 사후세계는 없다고 굳게 믿는다. 죽음 이후 절대자 앞에서의 심판 같은 것은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케세라세라(될 대로 되라)”를 외치며 세상을 함부로 사는 경향이 있다.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조차 “심판할 신이 없다고 믿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함부로 살아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 같다”고 불평할 정도가 된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심판이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실상 나이가 많아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철학은 죽음을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

하는데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다. 전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현실 속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런던의 시내버스 광고판에 쓴 문구 “아마 하나님은 없을걸. 그러니 심판 걱정하지 말고 삶을 마음껏 즐겨”가 생각난다. 후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바른 삶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죽음의 극복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언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사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예표를 보여준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b).

기독교인은 삶 속에서 이 약속의 힘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 보여야 할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묵상: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는가?

쓰레기 DNA 논쟁과 하나님의 창조설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지혜자!

지난 2000년 6월 26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와 크레이그 벤터 박사를 동반해서 지놈(Genome) 프로젝트 완료가 눈앞에 있다고 선포했다. 지놈 프로젝트란 약 30억 개로 구성된 인간의 DNA 염기 하나 하나를 분석해서 염기서열 전체를 파악하는 세계 최초의 연구였다. 지놈 프로젝트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21세기 생명과학의 시대가 됨을 알리는 매우 상징적인 연구였다. 지놈 프로젝트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계획으로 한 사람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기술 등의 도입으로 연구 기간이 앞당겨져서 2003년 4월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

2001년 지놈프로젝트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인간 DNA를 구성하는 30억 개의 염기 중에서 95%는 쓸데없는 쓰레기 DNA라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설계를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다.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 찾은 인간의 3만여 개 유전자는 전체 30억 개의 염기 중에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의 염기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진화과정 가운데 기능이 사라진 유전자들이 쌓여서 쓰레기 DNA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콜린스 박사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를 조화시키는 ‘바이오로고스’라는 개념을 주장하였고, 2007년 바이오로고스 재단을 창립해서 유신진화론(하나님께서 진화하도록 하셨다는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지놈 프로젝트는 당시 첨단 과학연구였다. 따라서 인간의 30억 개 염기에 진화의 흔적인 쓰레기 DNA가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처럼 보여졌다. 당시 나는 많은 교회에서 이 연구결과를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나온 해석일 뿐이고,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인간의 DNA에 쓰레기 DNA가 가득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세미나를 많이 했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2007년 Encode 프로젝트에서는 30억 개의 거의 모든 염기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유전정보를 조절하는 기전이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밝혀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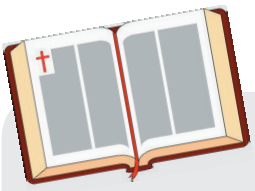
다. 이제는 쓰레기 DNA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거의 없다. 도리어 Phillip Ball 박사는 2013년 ‘모르는 것에 대한 축제(Celebrate Unknowns)’라는 제목의 글을 Nature지에 기고하면서 진화론으로 복잡한 조절 기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기술하였다.

DNA가 하나님의 창조설계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쓰레기 DNA가 인간의 유전정보 설계도에 가득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과학자들이 DNA에서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 유전자(gene)만을 기능하는 염기로 생각하고,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있는 염기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 오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만 일하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를 설계하고, 판매하고, 인사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의 유전자가 쓰레기 DNA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과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지만,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내린 잘못된 결론이었다. 이처럼 과학은 발견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해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쓰레기 DNA 주장은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라졌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든 진화론 믿음 자체는 고쳐지지 않고 계속 과학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진화론적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설계를 믿는 과학자들과 누적되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그런 해석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주도할 하나님의 과학자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지혜자이기 때문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박국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된 예언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니 기대하는 바도 없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지의 문을 가지고 때로 실망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폭력, 부정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악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절반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대답은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부정하고, 더 악하고, 더 폭력적인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유다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

하박국은 의롭고 선한 지도자가 나와서 개혁을 이루고, 악에 대한 정당한 징벌을 가하고, 우상을 근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근절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 방법의 부당함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이들이 그보다 의로운 백성들을 징벌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1장 12~13절).

물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지라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와 세력들, 지도자가 세상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면 왜 이런 세상이 되어 갑니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이 던진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품어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 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물로 끌어 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겨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마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마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이는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1장 14~17절).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연약한 물고기로 비유하고, 바벨론을 무자비한 어부로 비유했

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런 그림에는 군사들이 싸울 때 그물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적군을 지배할 때 자신들은 어부로, 그들은 무기력한 물고기처럼,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끌려올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대상들을 정복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유가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만 던지면 잡히는 연약한 물고기처럼 백성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악함은 그물을 송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분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송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물마다 제사하고 분향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기를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멸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느냐고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박국과 그 질문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경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처럼 기도하라!

첫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2장 1절).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당황스러운 순간,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나타내게 합니다. 믿음이 순금 같은지, 아니면 도금된 믿음인지는 굽어보면 압니다. 찢어보면 압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질그릇일 뿐인지가 드러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박국의 믿음이 분출됩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어렵고 실망스러

울 때마다 더욱 기도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는 기도였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듣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이 기도라면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아마 세상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기대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갈 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영적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듣고, 응답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두 번째 교훈은 ‘기록하라’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관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2장 2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계시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선지자들은 자신의 집이나 성전에 있는 석판 위에 자신이 받은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한 재난의 상황,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달리는 사람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과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면에 계속)

사역, 놀면 머하니?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온라인으로 문을 연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집합금지), 이동 자제, 종교활동 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춘 것 같다. 하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사역, 놀면 머하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역팀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그 주인공은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이다.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은 동부이촌동에 사는 일본인 주재원 아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한국어교실이 1년 만에 온라인(Zoom)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초급, 중급, 상급반에서 총 12명의 일본인 주재원 아내들이 한글도 배우고, 복음도 듣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리틀 도쿄'. 동부이촌동의 별칭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주한일본인이 27,280명인데 그중에서 동부이촌동에만 1천여 명 거주한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가 동부이촌동에 사는 일본인 전도를 위한 기도모임에서 태동했을 정도다.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은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된 주재원 아내들을 전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교회와 복음도 전하는 한글강좌가 한국어교실 전신이다.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일본인 주재원 아내들 태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주재원 아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아이도 봐주는 한글강좌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은 따로 광고할 필요가 없었다. 신청자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자까지 속출할 정도였다. 그 생동감 있는 한국어교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동안이나 문을 열지 못했다. 계속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어예배부는 1년 만에 온라인으로 한국어교실을 열기로 했다. 한국어교실 강사로 섬기는 이경순 성도, 이해연 집사, 김혜영 집사의 다시 섬기는 기쁨이 두 배, 일본인 참가자들의 호응도 두 배 커졌다.

함께 밥 먹고, 한국 TV도 보고 이경순 성도의 곳 아이디어

이경순 성도(일본어예배부)는 한국어교실 상급반을 섬기고 있다. 현재 학생이 3명이다. 이경순 성도는 한국어교실을 온라인으로 개강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만의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천으로 배우는 한국어를 가르쳐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인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 엄마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한국 음식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을 섬기는 김혜영 집사, 이해연 집사, 이경순 성도(왼쪽부터).

'과' '자녀교육'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재미있는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민과 기도 끝에 생각해낸 방법은 일본인 참가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한국어교실 상급반에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5인 이하는 모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 참가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등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보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본인들이 의외로 한국 사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집에 초대받아 갈 일은 더 더욱 없고요. 그래서인지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경순 성도는 일본인 참가자들과 한국 음식을 배부르게 나눠 먹고 한국 TV를 시청한다. 주로 보는 프로그램은 오은영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육아법을 코칭해주는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이다.

"그 프로그램이 자막이 잘 되어 있어서 일본인 엄마들이 보기에 정말 편합니다. 한번은 그 프로그램에서 '으쓱으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본어에는 쌍시옷 발음이 없어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하면서 '남편을 칭찬해보라. 그러면 남편들의 어깨가 으쓱으쓱할 것'이라고 했더니 다들 한 번에 알아들더라

고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녀교육법도 배울 수 있고, 한국어 표현도 배울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 보는 것 자체가 일거양득입니다."

이경순 성도는 한국어교실 참가자들과 일본어예배부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이 너무 귀하다고 고백했다.

"한국어교실과 일본어예배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일본어예배부 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온갖 신을 믿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게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을 전도하는 일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본어예배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섬겼더니... 이해연, 김혜영 집사의 헌신

이해연 집사는 한국어교실 중급반을 섬기고 있다. 2010년부터 한국어교실을 섬겼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이해연 집사는 10년 넘게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 봉사자가 되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어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온누리신문에서 한국어교실 베이비시터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

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해연 집사는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 베이비시터로 1년 동안 봉사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도 수강했다. 그리고 한국어교실 교사로 섬겼다. 이해연 집사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일본인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고비가 찾아왔다.

"정말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새벽예배에서 들은 설교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인 엄마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풍족하게 지내도 그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힘이 샘 솟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던 열매도 맺혔다. 그것도 정말 탐스럽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열매다.

"소위 말하는 독박육아를 하던 쌍둥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에게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분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섬겼더니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분이 일본으로 돌아가 쌍둥이를 데리고 동네 교회에 나갔습니다. 또 한 분은 재작년 일본으로 출국한 엄마입니다. 세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세례받으면 이혼한다'고 해서 세례도 못 받고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김혜영 집사는 초급반을 섬기고 있다. 온라인 한국어교실 수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있다.

"제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교회 오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에 참가하면서 교회를 접하고, 일본어예배부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귀한 과정의 시작이 일본어예배부 한국어교실입니다. 한국어교실이 일본인들을 더 많이 전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주시요"

문의: 02-3215-3702

말씀, 예배, 전도가 살아 움직인다!

온누리M미션이 경험하고 있는 뉴노멀

환경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누리M미션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온누리M미션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굉장히 역동적이다. 말씀과 예배, 전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맛보고 있다. 그 변화 덕분에 온누리M미션 사역자들은 이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주민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온누리M미션이 경험하고 있는 뉴노멀을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주민사역’ 하면 ‘공황사역’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공황사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온누리M미션의 이주민사역은 조금 다르다. 온누리M미션의 ‘이주민사역’ 하면 ‘성경’이 먼저 떠오른다. 이주민 성도들이 ‘성경 삼매경’(三昧境)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이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늘 성경 읽기를 독려했는데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에스라 프로젝트’에 이주민공동체도 참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주민들이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의 참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스라 프로젝트 이후에는 ‘90일 성경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재미에 더 깊이 빠졌다. ‘90일 성경읽기’로도 부족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원캠페인’과 ‘사복음서 읽기, 쓰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우양가 성도(러시아어예배)는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넘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폭 빠져 있다. 신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제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걱정했고,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에 집중하면서 걱정과 불안함 틈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연구에 폭 빠져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퍼낙 형제(캄보디아어예배)는 캄보디아어예배 성도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재확인했다.

“저는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해서 일이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 혼자 신약 성경을 필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어예배 지체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동역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필사하는 재미에 폭 빠진 로퍼낙 형제(캄보디아어예배)와 이주민들을 찾아가는 조의숙 선교사와 스리랑카어예배.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도 성경의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경자 어르신(중국어예배)은 신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진정어머니가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들었다.

“진정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석 달을 저와 함께 지내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4년 동안 유학생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따듯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정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전하려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애 선교사(캄보디아어예배)는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변화가 이주민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이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던 성도들도 한 번씩은 성경을 봅니다. 코로나19로 잘 모이지 못하는데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가 이주민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어예배의 ‘찾아가는 예배’

코로나19는 이주민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지리를 찾아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형제들도 많다. 스리랑카어예배 소속 다순 형제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

로 이직했다. 다순 형제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안산M센터를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다순 형제가 이직하기로 한 결정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조의숙 선교사도 참 많이 아쉬웠다. 조의숙 선교사와 스리랑카어예배 스태프들은 다순 형제가 안산M센터에 올 수 없다면 직접 만나러 가기로 작정했다. 바로 이것이 ‘찾아가는 예배’이다.

조의숙 선교사와 스리랑카어예배 스태프들은 지난해에만 다순 형제가 있는 광주광역시를 세 번이나 찾았다. 직접 찾아가서 다순 형제와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과정에서 다순 형제의 동료와 룸메이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조의숙 선교사와 스리랑카어예배 스태프들은 경기도 화성에서 일하고 있는 우뿔 형제도 찾아가다. 스리랑카 선교사가 조의숙 선교사에게 돌봄을 부탁한 형제이다. 일이 늦게 끝나서 안산M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형제였다. 그래서 스리랑카어예배 스태프들이 그를 직접 찾아가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우뿔 형제를 찾아가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양한 열매들이 맺혔다. 우뿔 형제와 함께 일하는 스리랑카인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마지막 만남에서 우뿔 형제와 10명의 스리랑카 형제들이 꼭 다시 찾아와달라고 부탁했다.

“온누리M센터 모든 사역자가 이주민 성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가 돕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멀리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주민 한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의숙 선교사 혼자 사역했다면 찾아가는 예배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연웅 형제(여호수아청년부), 정주섭 형제(하늘대학부), 김진솔 형제(요셉청년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그들이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인지 모른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람을 어려운 존재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청년들이 이주민들을 찾아와서 함께 어울리고, 운동하고, 생활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의 도전 ‘온라인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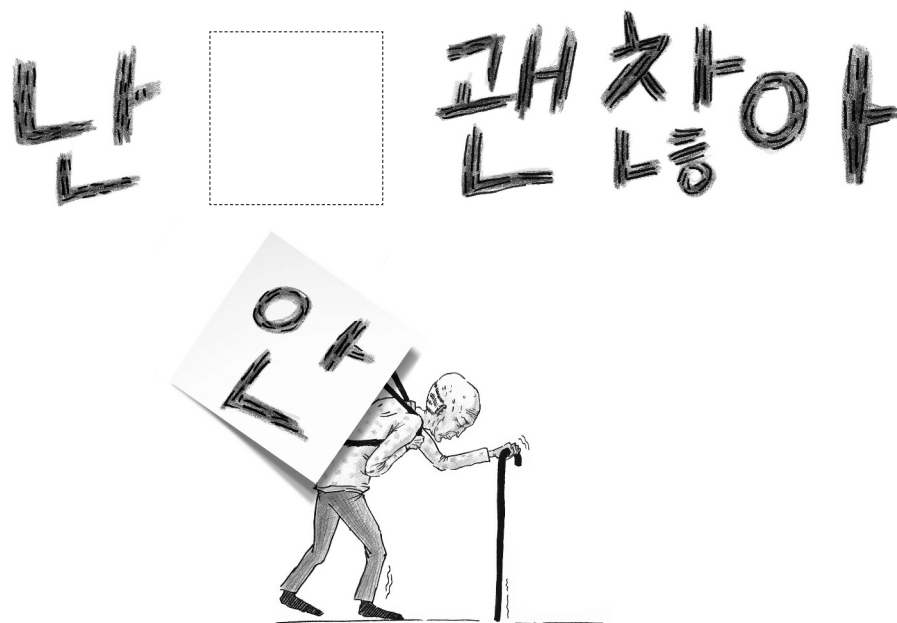
이운유 선교사는 중동에서 사역하다 귀국했다. 안산M센터에서 아랍권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전도방법이 고민이었다. 중동보다 환경은 좋은데 좀처럼 아랍권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도방법을 고심하던 중에 ‘페이스북 전도’를 알게 됐다.

“페이스북 광고로 특정군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랍어를 쓰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했습니다. 90% 정도가 부정적, 10% 정도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도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이외에도 클릭 전도, 모바일 전도 등 다양한 온라인 전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M미션포럼을 개최해서 다양한 주제, 새로운 경험과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온누리M미션 포럼은 6월 30일 오전 10시 안산M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문의: 안산M센터 031-491-9650

교회와 성도의 역할 노인학대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2006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보내면서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난 괜찮아.”

‘난 괜찮아’라고 쓰인 포스터를 본 적이 있다. 가까이 보니 글자 사이에 네모난 빈칸이 보였다.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빈칸 아래에 ‘안’이라는 글씨를 얹고 있는 노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포스터에 적힌 모든 글자를 합쳐보면 ‘난 안 괜찮아’다.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노인을 표현하는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다.

괜찮지 않은 노인이 매년 늘고 있다.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 6,973건이다.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6,259건으로 전년(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2016년(4,280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 46%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 가려진 노인학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분석한다.

노인들이 괜찮아야만 했던 이유

노인학대는 애초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자의 선처 요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노인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다. 88%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 딸(8.8%) 순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딸 등 자녀의 비중이 43%로 절반에 가깝다.

이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괜찮아야만 했던 이유다. 자신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인들은 괜

찮아야만 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 던지기, 구타, 구금, 가해 협박 등이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을 자녀나 부양당사자가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이나 생활환경을 박탈하는 등 부당한 착취와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적 학대는 노인과의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와 자녀, 시설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방임은 노인에게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는 행위, 의약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감금해놓고 장시간 외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유기는 더 적극적인 방법의 방임으로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다.

노인 스스로 노인학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것을 자기방임이라고 하는데 노인학대의 또 다른 유형이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불안감과 우울감, 고립감 등에 갇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외부로 돌리지 못하는 미움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학대보다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다.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역시 매우 다양하다.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 가치관의 변화, 현대 사회 가족의 구조와 기능적 변화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서 노인학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온라인만 보더라도 ‘할매미(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노인)’, ‘틀딱충(틀니에서 딱딱 나는 소리+벌레)’, ‘연금충(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벌레)’ 등 노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난무

한다. 이러한 혐오 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2019 노인혐오차별실태조사’(20~50대 대상, 온라인 실시)에 따르면 노인혐오 표현에 대해 20~30대 87%, 40~50대 82.7%가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노인혐오 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항에 20~30대 82%, 40~50대 88.6%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노인혐오는 노인을 말도 통하지 않는 대상, 부양해야 할 부담스러운 대상으로만 여기는 노인에 대한 편견에서 일어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과 청장년세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노인과 청장년 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물음에 노년층 51.5%가 동의했는데, 청장년층은 무려 87.6%가 동의했다.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는 문항에도 노년층 44.3%만 동의했는데, 청장년층 80.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청장년층 과반이 노인 일자리 확대(55.4%)와 노인 복지 확대(77.8%)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노인을 향하고 있는 비하, 혐오, 폭력이 부메랑이 되어 훗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나이를 떠나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빠르게 신고하고,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실 설치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노인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책 <노인상담>(장선철, 김남원 저, 2018)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국내 신문 기사에 보도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노인학대 관련 단순 보도 기사 189건, 의견 기사 32건, 기획연재 기

사 20건, 인터뷰 기사는 단 2건이었다. 사회적 이슈를 가장 먼저 다루는 신문 기사에 노인학대 관련 기사가 적다는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학대를 가정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웃에 사는 노인에게 학대당한 흔적은 없는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어지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목격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2018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자의적 판단 때문’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학대가 아닐 경우 괜히 참견했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 문제는 밖으로 꺼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학대당하는 노인들이 차마 자식을 신고하지 못한 채 장기간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돕는 전문적인 상담실도 필요하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이야기를 털어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상담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쌓아온 삶의 지혜를 경청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모를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2~3).

“너는 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32).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전문가 기고

이데올로기보다 복음!

호국보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칼럼니스트, 기업인)

“라떼는 말이야. 대학생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몸을 던져 싸웠지. 어른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데모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 민주화가 된 건

미안파처럼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준비나 돈 버는 것 외에는 도무지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를 자주 입에 올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꼰대’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태극기집회가 한창이던 때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가족끼리 식사하다 아버지가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정권을 비판하면 자녀들과 언쟁이 붙었다. 부모와 정치색, 가치관 차이가 큰 자녀들은 아예 대화를 기피한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좌편향적이거나 우편향적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예배 중에 별뿔 일어나 나가버리는 일도 있어 목사님들이 예배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신경이 쓰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도 그것을 절실히 느낀 적이 있다. 20년 가까이 크리스천 CEO들과 함께해 온 기도 모임에서다. 이 모임에는 사회적으로도 각 분야를 대표하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함께 해왔는데 모임 자체의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다. 예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기 때문에 회장이나 조직도 없다. 그래서 정치인은 처음부터 회원으로 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인, 법조인 중에서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면으로 모이면 서로 말을 조심하는데 단체채팅방에서 보수 야당의 비례대표 한 분이 태극기집회 공지를 올리자 진보 여당의원이 반발하고 나가버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경색되었다. 이쯤 되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방색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라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의 싸움 같았다. 방장인 나한테 항의와 우려가 담긴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다. 모임을 해체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꼈다. 한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져온 정기모임이었지만 일단 코로나19를 핑계로 오프라인 모임을 중단하고 단체채팅방에 말씀과 회원들의 동정만 공유하고 있는데 웬지 옛날 같지 않다.

나는 이데올로기가 복음의 가치보다 앞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



교회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복음의 가치보다

앞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故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故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좇았기 때문이다.

알하다고 생각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25 한국전쟁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과 6월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몸살을 앓는다. 5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6월에는 6.25 한국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SBS에서 종영한 ‘오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를 봤다. 1980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이 드라마를 보며 희생자를 통계를만 보기에 모든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대대로 원수지간인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처럼 대공수사과장의 아들과 할아버지 때부터 빨치산 낙인이 찍힌 집안의 청춘남녀가 갖은 훼방속에서도 수채화 같은 사랑을 키워나갔지만 결국 5.18로 인해 꿈과 사랑이 짓밟힌다. 희생자 중에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만삭의 임산부도 있었고, 귀가하던 고등학생과 어린 초등학생도 있었다. 외할머니와 함께 숨진 5살 어린이도 있고,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는 행방불명자도 적지 않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불씨는 7년 후인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다.

지난 6월 6일 KBS 1TV <사시기획 창>에서 ‘재일학도의용군 포화 속으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반도는 비극의 전장이 되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무기력하게 밀려나는 국군에 낙동강 방어선이 최후의 전선이 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기를 맞고 있던 그때 병역의무도, 참전 의무도 없었지만 가까이 바다를 건너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다. 조국 수호를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642명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이다. 맥아더 사령부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이후 원산을 거쳐 함흥, 나진, 압록강 일대까지 진격하고, 장진호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에서 가까이 목숨을 바쳐 혁혁한 공을 세운 재일학도의용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뤘다. 그들은 일본 명문대학 유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외친 ‘조국을 구하는 길에 군번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다’는 구호는 뜨거운 참전 열기를 말해준다. 나라를 잃은 설움과 차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재외동포들이었다. 도쿄와 오사카, 규슈 지역의 15개 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원 입대자들이 모여들었고, 신체검사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된 642명이 1진부터 5진까지 나뉘어 차례로 구국 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전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3년 동안의 전쟁에서 국군과 미군

각 부대에 배속돼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 642명 중에서 135명이 전사했다. 그들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군대에 남아 장교나 하사관으로 오늘날 한국군의 초석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시기획 창> 블로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백마고지, 김일성고지 그 중부전선에서 산화한 청년들,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함정과 서해교전을 벌이다 순직한 장병들도 우리의 자녀들이다.”

교회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복음의 가치보다 앞서지 않도록

6.25 한국전쟁은 1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그 이야기만 꺼내면 젊은 사람들은 라떼를 말하는 꼰대 세대의 한풀이나 옛날 전쟁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전쟁에는 사상 유례 없는 총 41개국(16개국에서 전투참전, 5개국에서 의료지원, 20개국에서 물자지원)이 참전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참전해서 흘린 피의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전사자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이군경회, 월남 참전전우회, HID북파공작원,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모두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다.

비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어디 이뿐이라! 온누리교회가 매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와 1월 1일 신년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다 같이 일어나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태극기가 극보수 애국단체, 꼰대들의 깃발처럼 여겨지는 것이 가슴 아프다. 미국인들이 평일에도 성조기를 집과 사무실에 게양해 놓고, 지도자들은 언제나 프로필 사진으로 성조기를 세워 놓듯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기성세대들은 ‘1980년 광주’에 대해 호남에서 일어났던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소중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복음의 가치보다 앞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故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것은 일제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국전쟁 때 나환자를 돌보던 故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살해한 공산군을 양아들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용서의 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좇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최근 미안파 사태를 바라보며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헛되지 않도록, 선교의 문을 통해 새 생명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성경적 결혼의 본질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혼수, 예단, 식장, 신혼집 계약 등)를 한창 고민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다가 문득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예비부부가 결혼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꼭 살펴야 할 점검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멘토님!”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이란 걸 한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을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정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결혼에 임해야 하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한다.

요즘은 이혼율이 높고 출산율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다.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준비하는 결혼은 한낱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성경적 관점 없이 무작정 결혼을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을 앞두고 성경적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손수 빚으신 아담을 보시며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도움의 배필(에zell)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부족한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셨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보다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관계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존재가 있는 곳,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상대가 있는 곳,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꿈을 꾸며 미래를 설계하는 곳,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인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연합을 통해 경건

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마 19:5).

한 몸이 된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희생함으로 가정이라는 하나의 성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결혼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결혼은 달라야 한다. 크리스천 부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서로 섬기기를 힘쓰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을 통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멘토님들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청년들이고**

민이나 사연을 보내 주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조언과 위로를 선물한다. 고민이나 사연 보내는 곳: joo@onnuri.org



김진애 권사
(SNS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계속 알아가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관계

얼마 전 부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원가족(原家族, 태어나서 자라 온 가정) 그리기’를 했다. 원가족 그리기는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를 모티브로 한 투사적 그림 그리기의 한 방식이다. 원래 동적 가족화는 상담 과정에서 언어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 가족의 역동과 친밀도 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갈등을 표현하게 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부부 회복 프로그램에서 원가족 그리기는 부부가 각자 어린 시절 기억나는 자신과 원가족을 그림을 그린 다음,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동과 정서적 친밀감의 정도, 개인의 기본적인 감정 분위기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부 갈등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원가족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내와도 “나는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고”, “내가 갖는 주된 감정은 이런 거야”, “원가족과의 관계는 이랬어” 등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부부 나눔을 많이 해왔지만 나눔 때마다 새롭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원가족을 그리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가족 간의 거리와 그 거리에서 느끼는 애착, 친밀감의 정도였다. 나의 원가족 그림을 보면서 가족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집 사는 가족이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모습이었다. 가족 간의 거리감이 상당히 있었고, 자연스럽게 애착 정도와 친밀감의 정도가 매우 낮은 모습이었다.

반대로 아내는 나와 다른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 성장했다. 매우 강한 결속을 가진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내는 매우 약한 결속 성향을 가진 나로 인해서 서운함을 자주 경험했다. 자라는 가정 배경이 달라서 결혼 생활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물론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 지친 상황, 예민한 상태, 부부에게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치는 상황 등에서는 성장배경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나의 ‘약한 가족 결속’과 아내의 ‘강한 가족 결속’이 부딪칠 때 갈등과 서운함이 드러났다. 결혼 초기에는 종종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약한 결속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회피하려는 배우자와 쫓아가는 배우자의 쫓고 쫓기는 갈등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원가족 그림을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그림 작업을 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 나의 기본 정서에 있는 ‘불안’이다. 인간은 모두 불안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 과거에 겪었던 불안의 경험들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나의 불안의 이슈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의 사건 사고에 대한 불안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개인적인 불안의 이슈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서 도전, 열정, 모험, 변화, 창조 등은 매우 불편한 용어가 되었다. 아내에게 나의 과

거 성장과 기본 정서로 인해 자리 잡은 불안을 이야기했다. 아내의 반응은 “아~ 이래서 당신이 이렇구나!”, “당신이 더 잘 이해가 돼”였다.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 이러하네 만약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요구했다면 부부 갈등이 증폭됐을 것이다. 부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가족 그리기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부가 부담 없이 자신의 가족을 그림으로 그리고, 서로 과거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눈다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다. 부부는 계속 알아가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관계다.

적용: 어릴적 원가족과 함께 했던 기억나는 장면을 그려보고 배우자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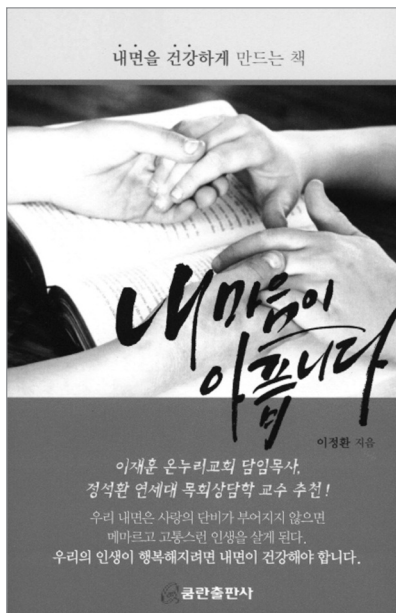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우리들의 이야기



〈내 마음이 아픁니다〉
이정환 저 | 콤란출판사 | 10,000원

현대 사회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화려하고, 살기 편해졌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회로 보인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세상이다. 행복하기 그지없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 화려한 도시 뒤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경쟁에서 밀리고, 사람에게 치이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막살려고 한다.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려 한다. 내가 당한 고통을 다른 누군가에게 안겨주려고 한다.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망원경과 현미경 두 렌즈의 차이가 무엇일까? 망원경으로 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다. 사랑 없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다. 반면 현미경으로 본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요즘 사회, 공동체, 가정, 우리를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모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한마음정신건강회복에 배에서는 매주 주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환우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한다.

소그룹 모임으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환우들의 아픔에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깨달아 주님과 관계 회복을 이룬다. 나는 이곳에서 마음이 아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적으로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스펙을 지녔지만, 내면이 병들어 힘든 삶을 사는 분도 있다. 어릴 적 당한 상처와 큰 아픔 때문에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나는 그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 함께 공유하고 싶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이 고장 났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사랑의 단비가 축축이 부어져야 한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과 식물이 시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 내면은 사랑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 속이 건강해야 장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내면이 건강해야 한다. 내면의 건강은 의사의 처방과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처와 아픔을 솔직히 오픈해야 한다. 그리고 상처

와 아픔과 이별해야 한다. 그다음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한다.

이 책은 내면의 아픔을 겪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다. 나와 이웃,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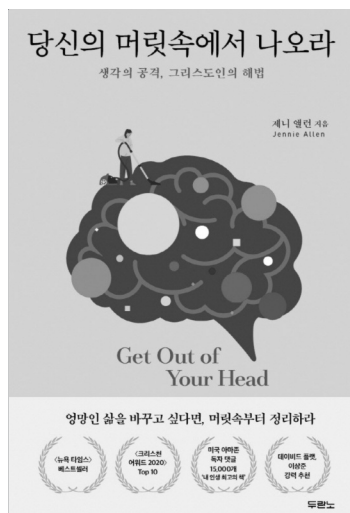
또한 이 책 안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픔을 나눈 소중한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분들과 만나면서 흘렸던 눈물과 아픔, 간절한 기도가 있다.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 없지만,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고,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이정환 목사
(송파B공동체, 회복사역)

두란노 신간

삶을 뒤흔드는 생각 해결하기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제니 앨런 저 | 두란노 | 17,000원

혼란스럽다면, 묵상(QT)의 시간을 가지라', '수치심으로 인해 고립되었다면, 공동체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라',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등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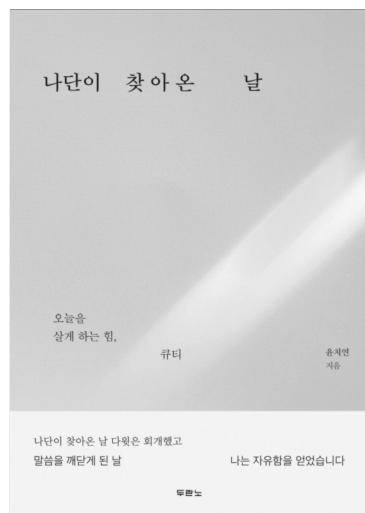
매일 밤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생각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후 10:5b).

책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의 내용을 관통하는 말씀이다. 저자는 우리의 생각이 삶과 신앙을 곤두박질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영망이 되어버린 삶과 신앙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18개월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시간을 고백한다.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이었던 저자가 영적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했던 순간을 고백하고, 암흑 같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는지를 나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권면한다.

책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는 삶을 뒤흔드는 유해하고 왜곡된 생각들을 해결하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탄의 방해와 소음으로 머릿속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는 '큐티'



〈나단이 찾아온 날〉
윤치연 저 | 두란노 | 12,000원

책 〈나단이 찾아온 날〉에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이었던 저자의 고백이 가득하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고 있다. 큐티가 무엇인지부터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큐티에 대한 자세한 간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는 기신자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왕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나단이 찾아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다윗의 잘못을 말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마치자 다윗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책 〈나단이 찾아온 날〉 프롤로그에 적힌 다윗의 이야기다. 저자는 “나단이 찾아온 날 다윗은 회개했고, 말씀을 깨닫게 된 날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저자는 나단의 이야기 주인공이 다윗이었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멀게만 느껴지던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삶이 변화된다고 말한다. 말씀을 내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은 ‘큐티’라고 소개한다.



코로나19,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극빈상태 개선사업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극빈 상태 개선사업'은 이름 그대로 극빈 상태에 놓인 여성가장가구가 삶을 살아갈 기회와 원동력을 심어 주고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르완다는 대학살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아프리카 내륙지역의 나라다. 안타깝게도 대학살 이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이 되었다. 남성 노동인구가 부족해서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을 많이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노력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32%가량이 극빈 상태다. 르완다 국민의 약 1/4이 여성이 가장인 가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활동하는 르와마가나 지역의 경우 빈곤층으로 고려되는 인구가 전체 24%에 달한다. 농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곳이지만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생산성과 생산량(kg/ha)이 적어서 빈곤과 영양실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월드비전과 함께 모자보건 영양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만성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던 어린이가 76.5%의 영양이 개선되었다. 약 60명의 지역 기반 보건인력도 육성했다. 대형 저수탱크 4개, 저수조를 포함한 스프링클



NGO 더멋진세상이 르완다 극빈 여성가장가구를 대상으로 극빈상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러 시스템 등 관개 시설 지원을 통해서 건기에도 마음껏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지원도 했다. 3모작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역과 빈곤 가정이 많다.

극빈곤층 여성가장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활 기반 마련'과 '생계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주제(Pillar)를 정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르완다 사람들에게!

르완다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거의 없다. 단순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위로, 새로운 정체성 확립, 주변 환경 개선, 기본적인 일상 교육(재정관리, 위생관리 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극빈상태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된 여성가장과 가족들이 미래를 꿈꾸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르완다는 나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2010년부터 10년 넘게 이곳에서 지내면서 르완다와 부룬디를 오가며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르완다를 떠났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나를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다시 르완다로 보내셨다. 왜 내가 다시 르완다로 와야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했다. 내가 르완다와 르완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 내가 르완다에서 많은 것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르완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많은 것을 누리며 지내왔다. 가능하다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정을 다시 르완다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 박준권 PM(NGO 더멋진세상)



코로나19, '온라인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큐티스쿨

큐티, 사랑의 음성 듣는 시간

나는 광야 같은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시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학업, 생활, 건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정적인 분위기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했다. 매일 새벽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졸업하고 미국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국의 한 회사로 이끄셨다. 말씀에 순종해서 회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내가 이곳에서 직장을 다닐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곳에 있었다. 전공과도 관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이니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힘들었다. 일이 전공과 맞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시 공부해야 했다.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꼭 필요했다.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과 공부로 심적으로 늘 분주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육적으로도 약해졌다. 분주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큐티였다. 큐티는 지친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었다. 그런데 내 큐티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루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



김하영 성도(서대문공동체)는 큐티스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다. 그래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허겁지겁 때우듯 급하게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기도는 랩을 하듯이 급하게 쏟아내고 일을 시작했다. 큐티스쿨을 수료하기 전 나의 큐티 모습이 그랬다. 내게 큐티는 기대감 없이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하는 시간이었다.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챙겨 먹는 아침밥 같은 것이었다.

큐티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반성했다. 노치 형 목사님 강의 중에 내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다.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큐티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

지 못했다. 높은 사람들과 편하지만은 않은 어려운 자리 그 정도였던 것 같다. 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시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혼내시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종종거렸다. 이제까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이제 나의 큐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사랑의 음성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된다. 큐티 시간이 즐거워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큐티 나눔이다. 큐티 나눔을 통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서로 하루를 위해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나눈다. 큐티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는다. 영혼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더 해주신다. 오랫동안 해오던 큐티라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큐티스쿨은 하나님과 만남이 새롭게 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김하영 성도(서대문공동체)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7월 5~9일 오후 8시, 유튜브 생중계 참여 가능

청년들을 위한 예배 선교 컨퍼런스 ‘2021 카운트다운’이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오후 8시에 막 오른다. ‘임재’, ‘거룩’, ‘부르심’, ‘선교’, ‘파송’을 주제로 진행된다.

7월 5일 김요셉 목사(원전침례교회) ‘임재’, 6일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거룩’, 7일 박지범 선교사(LAMP지도 목사) 부르심, 8일 권성찬 선교사(GMF 대표) ‘선교’, 9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파송’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찬양인도는 한성위십, 홀리임팩트, 아 이자야 씹스티원이 한다.

‘2021 카운트다운’ 현장참여 접수는 모두 마감됐고,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청년 세대의 영적 부흥과 예배·선교의 회복을 위해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올해가 다섯 번째 집회다.

문의: 02-570-753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개인전

사랑부 최주림 전시회, 배성연 피아노 리사이틀

사랑부(장애인 예배공동체) 소속 최주림 형제와 배성연 형제 개인전이 열린다.

최주림 형제(부천 사랑부) 개인전이 6월 28일(월)까지 인천 오솔갤러리(남동구 수현로 28-1 1층)에서 열린다. ‘자동차에 반하다 II’를 주제로 다양한 자동차, 오토바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최주림 형제는 2013년 그룹 전시회에 처음 출품했다.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 대상, KAPA(한국미술인진흥협회) 국제미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일현대미술작가회, 한미문화재단USA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성연 형제(강동 사랑부)는 첫 번째 정규앨범 ‘The Tempest’ 발매 기념 피아노 리사이틀(독주회)을 6월 24일 오

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인촌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앨범에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7번 (템페스트)’, 리스트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순례의 해 제2년 보유, 베네치아와 나폴리’가 수록되어 있다.

배성연 형제는 발달장애인 최초로 서울예고에 입학, 서울대 기악과에 진학했다.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전체 대상, 전국학생음악경진대회 피아노 부문 대상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자이다. 문교부장관상(2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시교육감상(2회)을 수상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툴뮤직에 소속되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청년 다니엘기도회 막 오른다

6월 21~26일 오후 8시 온라인

다니엘기도회(위원장 김은호 목사)에서 주관하는 ‘2021 청년 다니엘기도회’가 막 오른다.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후 8시 다니엘기도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교회와 가정, 일터 등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면 된다.

청년 다니엘기도회는 초교과 연합기도회다. 이 시대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자리다.

청년 다니엘기도회에서는 6월 21일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2일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23일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24일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25일 김은호 목사(오류교회), 26일 박성민 목사(CCC대표)가 설교한다.

문의: 02-6413-4922

/ 홍하영 기자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

7월 17일 오후 1시 박재현 소장 강의

가정사역본부 소속 아름다운 동행사역팀에서 7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 (이하 비대면 원데이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원데이 특강에서는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운영법과 효율적 활용법’에 대해 박재현 소장(비대면 교

육전문가)이 강의한다.

온라인 줌(Zoom) 운영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7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회비(1만 원)를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온라인 학습교재 및 강의 교안을 제공한다.

문의: 010-9041-5538

배워서 남 주자

대학청년부 봉사자 모집

대학청년부에서 ‘배워서 남 주자 프로젝트’ (이하 배남프) 교육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배남프는 교육 기회가 없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일대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튜터링 프로젝트다.

배남프는 10주 동안 이어진다. 배남프 교육 봉사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허입과정을 거쳐 교육 봉사자를 선발한다. 교육 봉사자에게는 온라인 수업 기구와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배남프 홈페이지(onnuribnp.com)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570-7521

‘One Thing’

갈청년부 특별 온라인 기도회

갈청년부가 지난 6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One Thing’을 주제로 특별 온라인 기도회를 개최했다. 매일 60여 명의 청년과 멘토들이 참석했다.

6월 7일 심우현 목사(은평교회), 8일 심석보 목사(우리는교회), 9일 김상호 목사(수정교회), 10일 조준목 목사(온누리교회), 11일 최현 목사(일산증가교회), 14일 김승수 목사(온누리교회), 15일 염희중 목사(은강교회), 16일 김재호 목사(서울제일교회), 17일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18일 김병준 목사(홍산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갈렙선교학교 6기 모집

갈렙선교학교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6월 27일(주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 모집

7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2021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을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국내외 사회 이슈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청년을 위한 벤처대회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크리스천 CEO 포럼, FWIA,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주최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방법은 6월 28일(화)부터 7월 15일(목)까지 어벤처스 네이버 공식블로그(blognaver.com/aventure2016)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다. 팀의 핵심 멤버 한 명은 반드시 기독교 인이어야 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최종선발팀에게는 상금 1,800만 원, 후속 멘토링,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액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문의: 010-4081-4682(이은유 매니저)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서 빙 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25일(금)	강촌	중	오후 8시
6월 25일(금)	한강	중	오후 8시
6월 26일(토)	일산	중	오후 8시
6월 27일(주일)	고양은평	중	오후 7시
6월 27일(주일)	동작	웹엑스	오후 7시
6월 29일(화)	동대문중앙	중	오후 8시
6월 29일(화)	영등포구로	중	오후 8시
6월 30일(수)	가정사역	중	오후 8시
6월 30일(수)	용산	중	오후 8시
6월 30일(수)	이수	중	오후 8시
7월 1일(목)	노원	웹엑스	오후 8시
7월 1일(목)	서빙고	중	오후 8시
7월 1일(목)	이촌	중	오후 8시
7월 1일(목)	특별한 초대	중	오후 8시 30분
7월 2일(금)	OCC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강서	웹엑스	오후 8시
7월 2일(금)	관악금천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성동광진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성북	중	오후 8시 10분
7월 2일(금)	양천	중	오후 7시 30분
7월 2일(금)	여의도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충정로	중	오후 8시 30분
7월 2일(금)	한양사역	중	오후 8시
7월 3일(토)	광명	중	오후 5시
7월 3일(토)	마포	유튜브, 웹엑스	오후 8시
7월 3일(토)	북누리	중	오후 5시
7월 3일(토)	신용산	중	오후 7시 30분

양 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11일(금)	강남C	중	오후 8시
6월 26일(토)	강남A	중	오후 8시
6월 26일(토)	강남B	중	오후 4시
6월 26일(토)	분당B	중	오후 8시
6월 26일(토)	서초D	중	오후 8시
6월 26일(토)	안재	중(유튜브 Live)	오후 8시
6월 27일(주일)	강남D	유튜브 Live	오후 8시
6월 27일(주일)	과천의왕	중	오후 4시
6월 27일(주일)	푸른누리	중	오후 5시
6월 27일(주일)	하모니	중	오후 8시
6월 29일(화)	서초A	중	오후 8시
6월 29일(화)	서초B	중	오후 8시
6월 30일(수)	강남E	중	오후 7시 50분
6월 30일(수)	분당A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경기A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도곡	웹엑스	오후 8시
7월 2일(금)	서초C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송파A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송파B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포인트5	중	오후 8시
방학없음	Bridge33+	-	-

캠퍼스			
6월 27일(주일)	부천 사랑공동체	분당	1부 예배 후
6월 27일(주일)	부천 화평공동체	분당	3부 예배 후
6월 27일(주일)	부천 화평공동체	중	오후 3시
7월 2일(금)	부천 믿음공동체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부천 소망공동체	중	오후 8시
6월 22일(화)	수원 서누리공동체	분당(유튜브 중계)	오후 8시
6월 24일(목)	수원 남누리공동체	분당(유튜브 중계)	오후 8시
6월 25일(금)	수원 북누리공동체	분당(유튜브 중계)	오후 8시
6월 26일(토)	수원 동누리공동체	분당(유튜브 중계)	오후 12시
6월 24일(목)	대전 동누리공동체	분당	오후 7시 30분
6월 25일(금)	대전 남누리공동체	분당	오후 8시
6월 25일(금)	대전 북누리공동체	세종교육관	오후 8시
7월 2일(금)	대전 서누리공동체	중	오후 8시
6월 30일(수)	남양주 공동체연합	중	오후 7시 30분
6월 25일(금)	평택 공동체연합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인천 공동체연합	중	오후 7시 30분
7월 1일(목)	강동 믿음공동체	중	오후 8시 30분
7월 2일(금)	강동 말씀공동체	중	오후 8시
7월 2일(금)	양지 동누리공동체	시안홀	오후 8시
7월 2일(금)	양지 서누리공동체	박도세홀	오후 8시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윤욱 성도(양재공동체)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과 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도의 소망과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다. 2019년 아내의 권유로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교회 게시판에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다. 망설임 없이 아내와 함께 등록했다. 주일 아침마다 장경문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전도문을 익히고 외웠다. 종로 탑골공원과 뚝섬 서울숲에 가서 조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노방전도 실습도 했다. 기본전도문을 암기하려고 집에서 전도문을 소리 내어 읽다가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아 펄펄 울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전도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기본전도문을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권유했더니 직원 두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했다. 물론 전도를 시도했다가 영접기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엔 낙심되지 않았다. 결과가 좋으면 전도에 더욱 힘을 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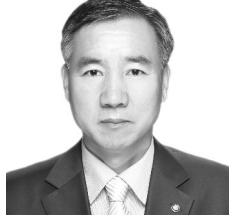
전도는 나를 살리는 힘!

지난해 초 인사이동으로 새로 만난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대화하며 세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 회사에서 식사하면서도 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자주 생겼다. 꽤 많은 동료와 부하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이 모든 일이 내 힘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 행실을 통한 생활의 열매가 전도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전도는 나를 살리는 힘이다. 내 삶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 전도하지 않거나 전도하려는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의 고민과 분주한 일에 파묻힌다. 금세 마음이 어려워지고 메마른다. 하지만 전도대상자를 떠올리며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신비한 생명이 새로 솟아난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 경기글로벌센터에서 초대합니다



/ 송인선 집사(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 경기글로벌센터)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국제연합(UN)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으로 지정했다.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세계 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소규모 정부의 행사에 그치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그마저도 대부분 중단됐다. 일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경기글로벌센터에서 재정착 난민 미얀마 카렌족 16가정 100여 명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 난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을 초청했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미얀마의 자유 독립을 위한 규탄 선언문도 낭독할 것이다. 미얀마에서 피 흘리며 군부와 맞서고 있는 시민군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싶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난민들이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 원주민들이 난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난민들도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거라고 생각한다.

재정착 난민인 미얀마 카렌족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1~3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4~7기는 김포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얀마를 떠나 태국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 한국행을 희망해서 왔다. 1980년대 미얀마를 떠나 태국 유엔 난민 캠프에서 성장하고 출생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은 유엔 난민 캠프를 통해서 세계 여러 국가로 흩어져 재정착하고 있다. 호주에 카렌족 임시정부를 두고 상호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은 정착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99명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경기글로벌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난민에 대해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문의: 032-344-1412

■ 세례 간증



/ 이창수 성도(동작공동체)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나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등하교 시간에 매일 지나던 놀이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다. 매일 지나가는 길이라 계속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 한 달 가까이 내게 말을 붙이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도망 다녔다. 그런데 공교롭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션스쿨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에도 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친구 한 명이 내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흘러갔다. 인생이 나로 가득 차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매일같이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아내가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고 권유했다. 아내의 권유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내하며 내게 손을 건네주

셨다. 그 사실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다.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다. 모든 인생의 진리는 성경 말씀 속에 있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해진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는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준비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매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한다.

■ 묵상 그리고 시



/ 박명희 집사(온누리교회 인천캠퍼스)

‘저녁 기도’(시 4:4)

주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욕을 씻었듯이
저의 영도
깨끗이 씻고 자게 하소서

오늘 나를 곤경에 빠트렸던
그 악인도
잠자리에 누울 때는
영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 죄의 결과를 두려워
하게 하소서

이미 세상은 썩었다며 자조하던
연약한 의인이
세상 시류를 따라 선한 삶을 포기하려 한다면
내일은 여호와의 빛이 저의 얼굴을 비추게 하소서

이때 저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녀되어 있게 하소서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밤이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로 인해 단잠을 자는
어린이가 같게 하소서

장로칼럼

권사칼럼

성도 예찬(禮讚)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안태환 장로
(온누리교회
양지캠퍼스)

녹음이 우거진 양지 온누리교회는 늘 활기찬 공간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순례배도 하고, 성도들과 은혜와 감사를 나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역이 숨을 고르고 있다. 여러 사역 중에서 ‘사랑의 줄 잇기’ 사역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사랑의 줄 잇기 사역은 신청미 집사님이 도맡아 하신다. 혼자 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다. 신청미 집사님은 매주 주일이면 텃밭에서 기른 농작물을 교회로 가지고 오신다. 로비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농산물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주 싼 값에 판매한다. 판매금은 전부 공활사역에 사용한다. 신청미 집사님 드시라고 선물 받은 농산물도 교회로 가져와 파시곤 하신다. 겨울에는 다름 데서 사다가 내놓기도 하신다. 몇 년을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의 줄 잇기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신청미 집사님의 남편분도 교회의 굿은 일을 다 하신다. 손봐야 할 곳이 있으면 솔선수범을 하신다. 그런데 2달 전에 횡집을 하는 성도님의 가게 일을 도와주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다. 뇌를 다쳐서 의식이 없다가 얼마전에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회복하고 계신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정작 신청미 집사님은 씩씩하고 긍정적이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힘이 참 귀하다는 것을 느낀다.

한 성도님은 서빙고동에 사시던 분이시다. 서

빙고 온누리교회 앞에서 김밥집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김밥집은 지인에게 넘기고 남영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셨다. 장사가 잘되다가 불이 나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빈집을 구해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빈집 리모델링을 조금씩 하면서 순례배에도 꼬박꼬박 나오셨다. 차편이 없어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곤 했었다. 그 성도님이 얼마 전에 한과명장이 되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셨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교육을 받고 양육하고 계신다. 물질과 마음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조금씩 한발씩 내딛으시며 회복하셨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삶이 흔들리지 않아서 귀하다.

우리 공동체 총무님도 기특하고 대단하다. 지난해 집사 안수를 받고 올해부터 총무로 섬기고 계신다.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오히려 순장을 세우고, 팀장을 세우고, 교역자들이 할 일을 돕는다. 교회에서 하랄 때는 거절하던 성도님들도 총무님이 이야기하면 순장이 되고 예배팀장이 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라는 총무님의 말과 행동에 성도들이 순장을 하고 팀장을 하는 것 같다. 교회 사역이라는 게 경력이 많거나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성령님이 계시면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다.

교회를 둘러보면 이름도 없이 꾸준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코로나19로 이벤트성 사역은 못 해도 어쩌면 내실이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 보기 좋고 멋있는 사역보다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좋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춤형사역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역 아닐까.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성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지난 6월 1일은 2월부터 16주 동안 진행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이하 일대일 양육자반) 종강일이였다. 시작과 끝, 마지막과 새것이 교차하면서 양육자반 운영자로 섬겼던 지난 16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일대일 양육자반 개강 전에 수강생들의 정보를 받았다. 수강생들의 연령을 확인하고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대다수가 30대였다. 너무 바쁜 연령대라 모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어느 공동체에서는 의기투합이라도 했는지 대거 등록했다.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당초 공지한 대로 2월 16일부터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시작했다.

34명으로 출발했다. 2주차에 한 형제분이 부친상을 당하고, 3주차에 한 자매님이 다른 훈련을 받게 된다고 나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화들로 인해 처음 가졌던 불안한 마음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결석자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산만함으로 인해 일대일 양육자반 전체 수강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다. 그런데 참가자들의 출결 상황이 들쭉날쭉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거의 매주 전원 출석이었다. 나의 염려가 소망으로 굳어졌다.

일대일 양육자반은 다른 양육프로그램과 달리 동반자라는 상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양육자반 교육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거나 실패한 경험을 나누면서 자기 십자

가를 높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예비 양육자 33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받으신 게 틀림없다.

일대일 양육자반 개강 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선언하는 한 사람’이라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주셨다. 일대일 양육자반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양육자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복음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각자 삶의 위치에서 일대일 전도자로 세워가는 최고의 맞춤형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 시험이 있었고, 포기를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훈련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어주었다. 각종 행사가 많았던 5월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막바지 행군(출 12:41)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더욱 출석과 강의 내용에 집중했다. 마지막 16주차 강의에서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을 수료선물로 주셨다.

양육자반 수업이 있던 화요일 밤은 33명의 별들이 복음의 빛을 만들어가는 귀한 헌신과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 귀한 훈련은 새가족으로 찾아오는 90년대 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역 교회를 말씀으로 돕거나 해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양육자로 서게 할 것이다. 16주 훈련은 모든 세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연결고리로 쓰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별이 빛나는 밤을 지켰던 예비 양육자님들과 그들을 도왔던 강사님 그리고 운영진 모두에게 다니엘서 말씀으로 축하를 대신한다. 지금도 아침과 저녁으로 새로운 양육자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운영진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고 싶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신앙에세이



송동주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프랑스에서 단기선교 활동을 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때처럼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미술관이 눈에 들어왔다. 일단 그 미술관에 들어갔다. 예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던 나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빠르게 작품들을 스캔하며 지나갔다. 저 코너만 돌면 드디어 출구였다. 출구로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구석 끝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는 한 작품이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찌릿찌릿한 전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작품은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었다.

그 그림의 시선과 십자가의 모양이 일반적인 모습과 사뭇 달랐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시선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모양이 달랐다. 단순히 나무를 교차로 겹쳐놓은 것이 아니라 활과 같은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두 팔이 달린 나무가 위를 향하고 반원 모양으로 둥글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릴 뻔했던 활시위를 연상케 하는 십자가였다. 작가의 통찰에 무릎을 쳤다. 작가는 부활에서 십자가를 해석한 것이다.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빛의 조명 속에서 바라볼 때 감추어진 의미가 분명해진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실패요, 절망이요, 수치이다. 그러나 부활에서 십자가를 보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 희망과 소망이 된다. 수많은 사람이 마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저주라고 말했고, 실패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려다볼 때 십자가는 곧 은혜이자 승리였다.

부활에서 바라본 십자가

베드로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절망을 느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터벅터벅 호숫가로 걸아갔다. 자신의 본래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셨다. 그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새 삶을 살아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새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한다. 그의 용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겨난 소망으로 인함이다. 부활 이후 곧 있게 될 예수님의 보좌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내려다보았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영광이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오고, 뜻하지 않은 아픔이 찾아오

곤 한다. 반복되는 계획의 실패와 일상의 무너짐을 겪다 보면 짙어진 고난의 십자가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나란히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에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다. 소망의 십자가가 된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두려움을 가져다주지만, 부활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희망을 가져다준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나란히 앉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 봐.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지?”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기도하라, 기록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리는 상황에서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나 재난, 심각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살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상황이라면, 위기와 재난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판에 기록된 말씀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다면 늦을 수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달리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의 마음 판에 명령께서 새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달려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에게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가 있겠습니까?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종말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새겨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린다'

세 번째 교훈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2장 3절).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단순

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이 그때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도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더디 오시는가?”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법을 알려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반드시 이 시간법을 대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십 년 정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안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이 A.D. 2021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천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법을 대입하면 이를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하루만 더 참자’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천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확한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

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2장 4절).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교만을 대조했습니다. 왜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불신을 대조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했을까요? 불신의 뿌리는 교만이고, 그 정체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행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에 의해 인용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하박국 전체 주제와 로마서 전체 주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반복되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하박국 시대입니다. 임박한 심판 직전에 살길을 주신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 심판 아래에서 살길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의롭다 여길 것이요, 자신을 의롭다 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임혜빈 선교사
(말라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혜빈 선교사입니다.

지난 4월 1일 출국했는데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의 힘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교지에 빨리 적응하고 있고, 사역도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마을에 처음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처음 본 풍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이곳에 와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마

술에 들어가는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다. 이곳에 와서부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사역 기간이 꽤 지났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합니다.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마을은 마을1과 마을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을에 유치원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 주에는 사역현장을 둘러보면서 유치원1과 유치원2를 방문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유치원 시설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욕심도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에는 시내에 나가서 유치원에 필요한 교구 등을 시장조사했습니다. 품목들을 작성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현지 교사들이 원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ECD(영유아 발달) 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통역 담당 현지 직원 ‘채리티’에게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채리티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유치원1, 2 선생님들은 매주 금요일에 공식적인 미팅 및 교육을 하고, 한 번씩 더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영어와 수학 교육도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계획을 짜면서 일주일 동안 진행할 수업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곳 선생님들이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조금해하지 않도록, 이곳의 속도에 발맞춰 하나하나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물이 며칠 동안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나왔을 때 “물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정전으로 캄캄한 상태로 밥을 먹다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나 생각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선교사님들과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는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님 부부, 이석열, 박민영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 루리, 저 이렇게 6명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되고,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말라위 땅에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역자님들도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집어 들고 읽어라!

톨레 레게

T O L L E L E G E

말씀으로 채우는 일상! 성경 암송 콘텐츠 <톨레 레게>
하루에 한 구절, 말씀 암송이 쉬워집니다



지금 기독교 OTT '풍당'에서
<톨레 레게>를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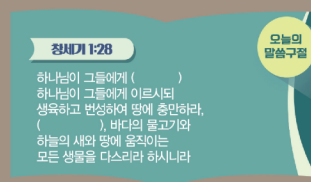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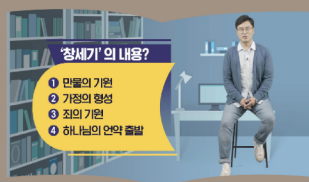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톨레 레게>와 함께 말씀 암송 후, 성경 암송 퀴즈 쇼 <바이블킹>에 도전해보세요! *8월 접수 시작